광주 프린지 '시민, 애술애(愛) 물들GO'

6월 4일 개막…150여 단체 참여
5개구의 '동네 프린지'로 확대
광주정신 재발견·기후위기 모토
시민 참여형…온오프라인 관람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오는 6월 4일 개막해 광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포스의 종합서커스 '아슬' 장면.

'광주 전역이 축제의 마당으로 물든다.'

2022 광주프린지페스트벌(프린지)이 5개구 마을 중심의 '동네 프린지'와 옛 도청 광장 중심의 '민주광장 프린지' 두 방식이 결합된 참여형 축제로 치러진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거리예술 축제가 오는 6월 4일 5·18민주광장에서 첫 문을 열고 10월 29일까지 5개월여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것.

'시민, 애술애(愛) 물들GO'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프린지는 마을과 광장을 축제 공간으로 연계해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향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지역에서 마당극을 30여 년 펼쳐왔던 이호준 씨가 예술감독을 맡아 축제를 기획했으며 모두 150여 개 예술 단체 등이 참여한다.

올해 프린지 두 방향은 광주 정신 재발견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정신이 기본 모토다.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 고양과 아울러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시대정신과 연계해 페스티벌로 풀어내자는 취지다. 광주를 마당으로 5개구 즉 '마을'로 확장해 광주와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프린지를 상정한 것은 그러한 맥락이다.

'동네 프린지'는 6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10회 진행된다. 5개구 10곳 거점공간을 배경으로 마을 축제와 연계해 펼쳐진다. 5·18민주광장(동구, 6월 4일), 광주에너지파크전시관(서구·7월 9일), 푸른길공원(남구·6월 11일), 양산호수공원(북구·6월 18일), 수완호수공원(광산구·6월 25일) 등에서 열린다. '민주 광장 프린지'는 오는 9월 17·24일, 10월 15·22·29일 등 5회 개최된다.

이번 프린지는 기후 위기를 중요한 메시지로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사장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환경을 생각하고 쓰레기가 작품이 되는 '되살림 아트', 기후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시민이 완성하는 '걸개 그림전'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기후 변화 북큐레이션을 주제로 기후환경 그림책 전시, 동화 작가가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 양말과 장갑 등을 활용한 인형 만들기 체험도 있다.

또한 이번 프린지는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관람이 가능하다. 오는 6월 4일 5·18민주광장에서 시작하는 '2022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매회 온라인으로 본 공연을 일부 관람할 수 있다. 지역 예술단체와 국내 초청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표작으로 포스의 컨템포러리 종합서커스 '아슬', 애니메이션 크루 스트릿 댄스 '공간: 춤', 팀 퍼니스트의 서커스 음악극 '체어, 테이블, 체어', 김영주의 서커스 '포스트맨' 등이 있다.

특히 현실과 이상, 그 안에 공존하는 균형을 다룬 '아슬'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불안한 모습을 담은 종합서커스다. '공간: 춤'은 정적이고 기계적인 움직임부터 역동적인 움직임까지 공간의 변화를 댄스로 표현한 작품이며 김영주의 '포스트맨'은 마임과 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한편 이호준 예술감독은 "올해 프린지페스티벌을 시민과 예술, 환경을 주제로 기획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로 만들어가려 한다"며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익산 연주단체 교류 음악회 연다

광주연우회-룩스필하모닉
26일 익산·31일 광주 공연

광주와 전북 익산의 연주단체가 두 도시를 오가며 음악회를 연다.

광주연우회(회장 최재훈)와 룩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조상익)가 오는 26일 익산, 31일 광주에서 교류 음악회를 개최한다.

먼저 26일 오후 7시 30분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광주는 빛입니다'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광주연우회 성악분과 회원들이 꾸미는 무대로 '광주의 노래', '독립운동가의 어록',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광주의 근대 문화유산과 독립운동의 시작 그리고 5·18민중항쟁의 아픔을 성악 앙상블로 노래한다.

이어 '쑥대머리', '전라도 젓갈', '거문도 뱃노래' 등 전라도 민요와 함께 '모모', '빙빙빙', '바윗돌', '바위섬' 등 1970년대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무대도 마련된다.

두 단체는 3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기념홀에서 함께 무대를 갖는다.

공연 1부는 룩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익산은 옛 왕도입니다'라는 주제로 창작오페라 '배비장전 서곡 화창한 봄날'를 시작으로 이베르 '플루트 협주곡', 비발디 '두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다.

익산 출신의 플루티스트 조은비와 비올리스트 유예슬이 룩스필하모닉과 협연을 펼치며, 광주를 대표해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과 한인지, 피아니스트 김연이 협연 무대를 갖는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광주연우회가 초연하는 창작 관현악곡 '임을 위한 남도타령(작곡 신동민)'을 연주한다. 이번 교류 음악회는 '2022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문의 010-3611-7391./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연 연습중인 광주연우회 모습.

가족 뮤지컬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온라인 공연

국립나주박물관, 28~29일

영국 작가 케니스 그레이엄의 대표작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은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꼽힌다. 시력이 약해 잘 못 보는 장애 아들을 위해 동물의 모험 이야기를 담았다. 서정적이며 상상력이 뛰어나 '영국 문학사의 보물'로 평가받는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가족 뮤지컬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공연을 오는 28~29일 박물과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작품은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는 한편 실감나는 대사와 위트 있는 몸짓으로 구현했다. 호기심 많은 두더지와 개성 강한 동물들에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도록 친근한 캐릭터로 연출한 것.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주제가 생생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전달된다. 문의 061-330-784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픈 세상 보듬고 치열하게 살았던 장두석 선생 삶 조명

안오일 작가 '장두석 평전' 펴내

"내 고통이 없이는 이웃에게 줄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내 고통이 수반될 때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

해관(海觀) 장두석(1938~2015) 선생의 평소 지론이었다. 일평생 그는 아픈 세상을 보듬고 치열하게 농민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이끌었다.

화순에서 출생한 그는 일제강점기와 분단, 독재시대 등 격동의 시대를 살았다. 소년 시절 간질환과 폐수종을 알았지만 고향 옹성산서 단식과 생채식으로 병이 완치되는 체험을 했다. 당시의 경험은 이후 그를 자연과 생활에 토대를 둔 민족생활의학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해관 장두석의 일대기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시인이자 동화작가인 안오일 작가가 펴낸 '장두석 평전'은 아픈 사람들과 아픈 세상을 보듬고 치열하게 살았던 장두석 선생의 삶을 조명한다. '겨레의 몸과 마음 살리며 통일춤 덩실덩실'이라는 부제처럼, 책은 지난한 시대를 옹골지게 살아낸 장두석의 일평생을 아우른다.

화순 이서 소학교 2학년 중퇴가 학력의 전부인 그는 삶 속에서 배움을 실천했다. 여순사건으로 1949년 집안 형님을 비롯한 마을 청년 7명이 총살을 당했고 6·25전쟁 중에는 집안의 형님이 보도연맹사건에 연루돼 저수지에 수장당했다. 당시 사건은 소년 장두석에게 큰 슬픔을 넘어 '왜?'라는 의문으로 다가왔고, 문제의 시작이 분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후 그의 삶은 평생의 동지이며 친구, 스승이었던 박현채와의 만남으로 전환기를 맞는다. "앞으로 무등산을 지키는 두목이 돼라"는 말은 그에게 의무이자 희망이 됐고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야학과 가톨릭농민회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80년 5·18때는 '죽음의 행진' 참여 등으로 수배돼 군사법정에서 12년 형을 선고받고 사면·석방되기도 했다.

장두석은 전통문화를 지키고 고향의 문화와 역사를 되살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뿌리 없는 생명은 없다'는 사상을 견지하며 역사적 소명이 있는 곳, 민중의 아픔이 잇는 곳을 찾았다. 한복 바지저고리 차림에 고무신을 신었던 그는 역사 속 '시대의 어른'으로 남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은희경 '새의 선물' 27년만에 100쇄…기념 개정판 출간

소설가 은희경(63)이 1995년 출간한 첫 장편 '새의 선물'이 이달 100쇄를 찍었다.

문학동네는 23일 "은희경 작가의 '새의 선물' 100쇄를 찍으며 개정판으로 출간한다"며 "이 작품은 1995년 초판이 출간된 뒤 27년간 꾸준히 사랑받으며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쇄(刷)는 같은 저작물을 인쇄한 횟수를 뜻하며, 쇄가 거듭할수록 작품이 오랜 시간 꾸준히 읽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지난해 4월 파울루 코엘류의 '연금술사'와 2007년 5월 안도현 시인의 '연어'가 100쇄를 찍은 바 있다고 문학동네는 전했다.

제1회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인 '새의 선물'은 주인공인 12살 소녀 진희의 시선을 통해 가족과 이웃,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담아낸 성장 소설이다. 소녀의 내면을 통해 인생의 희비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우리 사회 세태를 통찰했다.

/연합뉴스